

http://dx.doi.org/10.17703/JCCT.2023.9.4.351

JCCT 2023-7-41

## 역사극의 분석틀을 활용한 영화 <자산어보>의 내레이션 특성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Narration Characteristics of <The Book of Fish> Using the Analysis Frame of Historical Drama

채희상\*

Hee Sang Chae\*

**요약** 본 연구는 영화 <자산어보>(2021)가 19세기 성리학적 질서가 흔들리며 서서히 몰락해가는 조선을 어떤 방식으로 재현하고 있는지를 분석을 통해 살펴보기 위해 기획되었다. 분석에 앞서 역사극의 내레이션 특성을 고려하여 역사극의 분석틀을 제시하였다. 우리는 역사극의 분석틀을 활용하여 <자산어보>가 유배 서사의 플롯 구조를 기반으로 정약전, 장창대가 시대의 한계와 가능성 사이에서 주체적 개인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재현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흑백과 컬러 이미지의 대비, 보이스 오버 내레이션의 적극적 활용, 한시 자막과 음악 등으로 만들어낸 중심 기억과 잉여기억을 통해 영화는 주체적 개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관한 보편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

**주요어** : <자산어보>, 창조적 왜곡, 역사관, 중심기억, 잉여기억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how the movie <The Book of Fish> (2021) represents Joseon, which is slowly collapsing with the Neo-Confucian order of the 19th century shaking, and to discuss its meaning. Prior to the analysis, the analysis framework of the historical drama was presented considering the narration characteristics of the historical drama. Using the analysis framework of historical dramas, we confirmed that <The Book of Fish> is representing the image of Jeong Yak-jeon and Jang Chang-dae living their lives as independent individuals between the limitations and possibilities of the times based on the plot structure of the narrative of exile. Through the central memory and surplus memory created through plot and style elements such as contrast between black and white and color images, voice-over narration, chinese poetry subtitles and music, the film asks us universal questions about what it takes to live as an independent individual.

**Key words** : <The Book of Fish>, Creative Distortion, Historical Viewpoint, Central Memory, Surplus Memory

#### 1. 들어가는 말

영화 <자산어보>(2021)는 순조 1년(1801년) 신유박해로 흑산도로 유배되는 정약전과 청년 장창대의 관계를

다룬 이준익 감독의 역사극이다.

이준익은 삼국 시대[<황산벌>(2003), <평양성>(2011)]부터 조선 [<왕의 남자>(2005), <구르믈 버서난 달처럼>(2010), <사도>(2015), <자산어보>], 일제 강점기

\*정희원, 한신대학교 미디어영상광고홍보학부 부교수  
(제1저자, 교신저자)

접수일: 2023년 6월 19일, 수정완료일: 2023년 7월 5일

게재확정일: 2023년 7월 10일

Received: June 19, 2023 / Revised: July 5, 2023

Accepted: July 10, 2023

\*Corresponding Author: bruno47@hs.ac.kr

Dept. of Advertising, PR, & Visual Communication, Hanshin University, Korea

[<동주>(2016), <박열>(2017)]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역사극을 통해 역사의 소용돌이에 휘말린 개인들의 삶을 그려내고 있다.

이준익의 역사극에서 중심이 되는 사건은 대부분 남성들 간의 관계를 통해 진행된다. <왕의 남자>는 연산군과 광대들 사이에 미묘한 동성애 코드가 <동주>에서는 윤동주와 송몽규의 우정이 <사도>에서는 영조와 사도세자의 부자 관계가 서사의 중심이 된다.

<자산어보>는 이준익의 이전의 작품들과는 조금 다른 결에서 남성들 간의 관계에 접근하고 있다. 정약전과 장창대는 <사도>, <변산>(2018)의 혈연적 부자관계와는 다른 맥락에서 관계를 맺는다. 친부가 사는 나주를 향해서는 오죽도 싸기 싫어하는 버려진 아들인 서자 창대에게 정약전은 부재하는 아버지의 대리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아이러니하게도 두 사람의 관계는 약전을 통해 창대의 성리학에 관한 배움의 깊이가 깊어짐에 따라 조금씩 틀어지게 된다. 출세를 위한 욕망에 사로잡힌 창대는 결국 나주에 친부를 찾아간다. 그는 과거(초시)를 통과하고 친부의 도움으로 나주 목사 밑에서 일을 하게 된다.

하지만 현실의 작동원리는 『목민심서』 등 책에서 익힌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창대는 깨닫게 된다. 영화는 군포를 내지 않기 위해 자신의 성기를 낮으로 자르는 농민의 모습을 통해 창대의 깨달음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성리학적 세계에서 '상징적 거세'를 당한 정약전에게 다시 돌아가는 계기를 농민의 '물리적 거세'에서 찾는다[1] 영화는 정약전의 장례식(우이도)에 찾아간 후 다시 흑산도로 향하는 창대 가족의 모습으로 끝을 맺는다.

본 논문은 역사극의 분석틀을 활용하여 <자산어보>의 내레이션 특성을 정리하고 영화에 드러나는 감독의 역사관을 규명해보고자 한다. 정약전과 장창대의 관계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전체적인 서사 구조와 흑백과 컬러 이미지의 대비, 보이스 오버 내레이션과 한시 자막, 음악 등의 플롯 및 스타일 요소를 활용한 기억 이미지들의 의미를 고찰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역사극의 내레이션 특성을 고려하여 역사극의 분석틀을 제시하였다. 3, 4장에서는 이 분석틀을 활용해 <자산어보>에 두드러지는 중심기억과 잉여기억을 정리하였다. 이후 두 기억 요소들과 역사적 사실에 관한 창조적 왜곡을 통해 영화가 궁극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의식(역사관)이 무엇인지를 정리해 보았다.

## II. 역사극의 내레이션 특성

영화를 비롯한 영상의 스토리텔링은 감독(창작)과 관객(수용)이 각각 수행하는 내레이션(narration)이 만나는 지점에서 완성된다. 내레이션은 이야기 세계 내·외부에 속하는 제시된 사건들로 구성되는 플롯과 편집, 카메라 앵글, 쇼트의 크기와 색, 조명 등 영상의 시스템적 사용으로 구성되는 스타일 요소로 개념화된다. 관객은 창작 과정의 내레이션을 통해 완성된 영화가 제공하는 정보들을 바탕으로 스토리를 추론하게 된다[2].

과거의 역사적 사건과 인물을 다루는 역사극의 창작 과정에서의 내레이션은 과거의 특정 사건이나 시기를 선정하는 '사료(史料) 선택'으로 시작된다. 대부분의 경우 전쟁, 사회(土禍), 왕조 교체, 민란, 종교적 박해 등의 정치·사회적 큰 사건이나 시기가 선택된다[3].

그림 1은 사료 선택으로 시작되는 역사극이 어떤 과정을 거쳐 관객에게 사회적 효과를 일으키는지를 이해하기 위한 분석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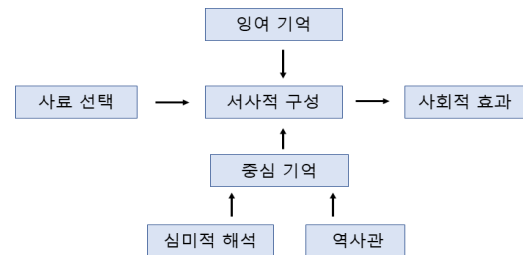


그림 1. 역사극의 분석틀[3, 4]  
Figure 1. Analysis frame of historical drama.

서사적 구성은 선택된 사료로 창작 매체(장르)를 고려하여 드라마로 만드는 과정이다. 사료를 연대기 순으로 짜 맞추고 부차적 줄거리라고 판단되는 것들을 빼고 하나의 이야기로 조리 있게 구성하는 작업[5]이 이루어진다.

감독은 영화 매체의 특성과 플롯 형식을 기반으로 선택된 사료를 재구성하여 과거의 사건이나 인물에 관한 특정 시점의 스토리를 만들어낸다. 이 과정을 통해 자신만의 심미적 해석을 작품 속에 녹여낸다. 감독이 궁극적으로 전달하고 싶은 역사관은 심미적 해석을 기반으로 작품에서 구조화된다. 역사극에서 역사관은 과거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감독의 '창조적 왜곡'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지점

이기도 하다. 동일한 사료에 바탕을 두더라도 다른 관점이나 해석이 표현되는 것이다. 과거의 기록으로 실재했던 인물과 사건을 서사적 구성을 통해 재현하는 과정에서 허구적 요소의 개입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 허구적 요소에 기반한 역사관의 정당성은 심미적 해석을 통한 ‘창조적 왜곡’이 역사적 진실을 드러낼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3, 6].

그림 1이 제시하는 ‘역사극의 분석틀’은 감독이 작품을 통해 드러내고자 하는 역사관을 이해하기 위해 ‘중심기억’과 ‘잉여기억’ 개념을 제안한다. 중심기억은 작품의 주제와 주요 플롯과 관련된 것으로 역사적 과거와 인물에 관한 명시적인 이미지로 표현된다. 중심기억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심미적 해석과 역사가 가장 직접적으로 개입하게 된다. 관객은 내레이션을 통해 스토리를 추론해가는 과정에서 중심기억을 발견하고 역사적 과거에 관한 특정 관점의 이미지를 형성하게 된다. 잉여기억은 중심기억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형성되는 비명시적이고 부수적인 기억으로 다른 맥락에서 과거를 의미화시킨다. 두 기억은 상호작용하며 관객이 과거의 역사적 사건을 자신이 속한 현재의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게 한다. 역사극의 사회적 효과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발생하게 된다[3].

역사극은 과거에 관한 기억을 현재화하면서 과거, 현재, 미래의 세 겹의 시간적 맥락에서 과거를 사유할 수 있게 해준다. 역사극의 ‘세 겹의 현재’라는 독특한 시간 구조가 형성되는 것이다. 역사극을 통해 역사적 과거에 관한 현재화된 기억(memory)은 관련된 현재의 현실에 대한 주의(attention)를 불러일으킨다. 나아가 이 두 겹의 현재는 미래에 실현될 현재에 대한 기대(expectation)와 결합된다. 역사극의 사회적 효과는 관객이 기대하는 ‘기억(과거)-주의(현재)-기대(미래)’의 세 겹의 현재의 맥락에서 실현된다[7].

### III. 전체 서사 구조 : 유배서사의 플롯

<자산어보>는 정약전의 흑산도에서의 유배 생활이 핵심이 되는 유배 서사의 플롯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유배는 죄를 짓고 낮설고 외딴 곳에서 물리적·사회적 단절을 경험하게 되는 가혹한 형벌이다. 하지만 정약전에게 유배지인 흑산도는 새로운 삶을 주는 치유의 공간이 된다[8].

영화는 신유박해로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버린 정약전이 흑산도로 향하는 배 위에서 정조와의 독대를 회상하는 장면으로 시작된다. 정조는 벼슬한 선비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을 ‘사방에서 칼이 들어오고 오물을 뒤집어 써도 버터내는 것’이라 말하며 정약전 형제들을 긴히 쓸 날이 있을 것이라고 버터내라고 명한다. 이 후 세례를 받는 모습을 지켜보는 약전 형제들의 장면과 상복을 입은 어린 순조 뒤에서 정순대비가 사학(邪學)의 무리들을 잡아들이라 명하는 장면이 이어진다. 정약중은 참수를 정약전, 정약용은 흑산도, 강진으로 유배를 떠나게 된다. 약용과 헤어지는 쇼트는 영화에 첫 장면인 배 위에 정약전의 모습으로 다시 이어진다.

‘흑산도로 향하는 배 위의 정약전 - 정조와의 독대와 신유박해 - 배 위의 정약전’으로 연결되는 초반의 시퀀스들은 관객에게 영화의 역사적 배경과 유배를 떠난 정약전의 심리 상태 그리고 정약전과 정약용, 정조와의 관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 정보는 관객에게 초두 효과(primacy effect)[2]를 일으킨다. 관객의 내레이션은 이 시퀀스들에서 획득한 플롯 정보를 기반으로 진행된다. 정조가 건넨 ‘버터내라’라는 말은 이후 정약전의 모든 말과 행동, 결심의 근거로 작동한다.

표 1은 정약전과 장창대의 관계맺음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영화의 전체 플롯 구조를 정리하고 있다.

표 1. <자산어보>의 전체 플롯 구조  
 Table 1. Plot structure of <The Book of Fish>

플롯 전개	주제	주요 내용
발단	유배를 통한 새로운 삶의 시작(약전)	약전, 흑산도에 도착해 유배 생활 시작
전개	교환을 통한 성장	물고기에 관한 지식(창대)과 성리학에 관한 지식(약전)의 교환을 통한 상호 성장
위기	엇갈림	목표를 위해 엇갈리는 두 사람
절정	완성과 깨달음	자산어보를 완성하는 약전과 현실을 통각하는 창대
결말	회귀를 통한 새로운 삶의 시작(창대)	창대, 새로운 삶의 시작을 위해 자산(흑산)으로 회귀함

약전과 창대는 신분, 나이(세대), 직업 등의 차이를 극복하고 주체적 개인으로 서로를 대한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은 자신이 가진 지식을 교환하면서 각자의 삶의 목표를 향해 나아간다.

플롯이 진행되면서 창대는 성리학적 세계에서 축출된 약전이 줄 수 없는 관직을 욕망하며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 친부가 있는 나주로 떠난다. 약전도 역시 자산어보의 완성을 위해 우이도로 생활의 터전을 옮긴다.

‘위기’ 단계에서의 엇갈림은 두 사람을 다른 방향으로 이끈다. 약전은 자산어보의 집필을 마치며 유배라는 현실적 한계 속에서 추구했던 자신의 삶의 목표를 완성해낸다. 창대는 불합리한 조세제도로 인해 수탈당하는 백성들을 구원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무기력함을 느낀다. 창대는 『목민심서』로 대표되는 성리학 책들을 읽으며 꿈꿔 왔던 유교적 질서가 작동되는 세계가 불가능함을 깨닫고 다시 흑산도로 돌아간다. 이제 창대에게 흑산도는 이전과는 다른 의미의 공간으로 다가온다. 흑산도가 약전에게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치유의 공간이 된 것처럼 창대에게도 또 다른 삶을 시작하는 공간이 될 것이다. 영화는 두 사람의 삶의 궤적을 서로 이어주며 끝을 맺는다.

#### IV. 시대의 한계와 가능성 사이에서 : 먼저 깨달은 약전이 창대를 기다리며

##### 1. 중심기억과 잉여기억

<자산어보>는 유배 서사의 플롯 구조를 기반으로 감독의 심미적 해석과 역사적 사실에 관한 창조적 왜곡을 활용하여 약전의 자산어보의 완성과정과 창대의 주체적 개인으로써의 깨달음의 과정을 그려내고 있다. 영화는 두 사람에 관한 중심기억을 통해 이를 명시적 이미지로 제시한다.

자산어보의 집필 과정에 관한 중심기억은 물고기를 관찰하며 창대와 문답을 주고받는 장면들을 중심으로 묘사된다. 관찰을 기록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약전의 보이스 오버 내레이션은 도감의 집필 과정이 두 사람의 공동의 노력의 결과임을 강조한다. 특히 ‘창대가 말하기를...’, ‘.....라고 창대가 말하였다’로 시작되거나 끝나는 보이스 오버 내레이션은 약전이 창대를 지식을 주고받는 한 명의 대등한 주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명시적으로 드러낸다.

창대의 깨달음에 관한 중심기억은 흑백과 컬러의 대비를 통해 상징적으로 전달된다. 흑백 영화인 <자산어보>에서 컬러 이미지는 세 번 나오는데 모두 창대의 깨달음의 순간을 상징한다.

그림 2는 창대의 깨달음을 강조하기 위해 활용된 컬러 이미지 쇼트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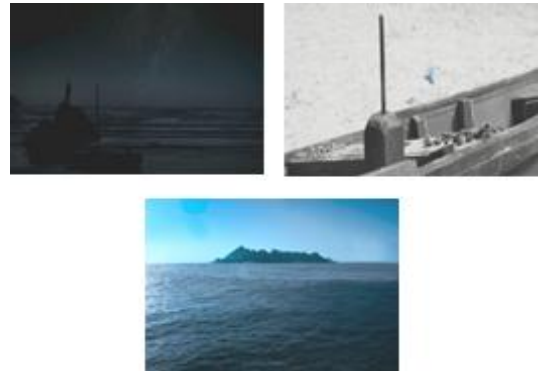


그림 2. 컬러 이미지를 통한 창대의 깨달음  
Figure 2. Awakening of ChangDae using color images

밤하늘의 별을 보며 성리학으로 서양의 기하학과 수리학을 받아들인 약전의 세계관을 이해하는 창대, 배운 대로 사는 게 불가능한 현실을 깨닫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한 감옥 안 창대의 모습은 날개 짓하는 파랑새(밤송이 새)로 이어진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돌아가는 창대의 눈에 보이는 흑산도의 컬러 이미지는 세상을 보는 다른 세계관을 상징한다(그림2).

<자산어보>에서 정약용의 한시(漢詩)들은 플롯의 직접적인 진행이나 인물의 감정이나 심리를 전달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창대와 정약용의 제자가 주고받는 시로는 <독소(獨笑)>의 한 부분을 군포를 내지 않기 위해 자신의 성기를 자르는 남자의 사연은 <애절양(哀絶陽)>에서 가져와 플롯을 구성하였다.

그림 3은 한시 자막을 활용하여 정약전, 정약용 형제의 그리움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이미지 쇼트들이다.



그림 3. 한시를 활용한 정서의 전달  
Figure 3. Conveying emotion using chinese poetry

영화의 대표적인 잉여기억은 한시를 활용하여 약용과 약전의 정서를 표현하는 장면에서 두드러진다. <울정별(栗亭別)>, <봉간손암(奉簡巽菴)> 두 편의 한시를 활용한 장면이 대표적이다. 유배 길에서 헤어지는 장면

을 묘사한 <울정별>은 약용의 목소리로, 형님의 안부를 물으며 편지를 대신해 보낸 <봉간손암>은 약용과 약전의 목소리가 교차되며 관객에게 전달된다.

<봉간손암>은 약용이 약전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전달하는 시이지만 영화에서는 마치 두 사람이 시를 주고 받으며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처럼 제시된다. 자막으로 한시의 텍스트가 더해지고 아름다운 음악이 두 사람의 목소리와 겹쳐지면서 관객은 한 편의 문인화(文人畵)를 감상하는 듯한 정서를 느끼게 된다(그림 3). 이 장면들은 영화 전체의 분위기를 전달하는 잉여기억으로 기능하며 중심기억의 의미를 좀 더 풍부하게 해준다.

## 2. 창조적 왜곡을 통한 역사관의 전달

약전과 창대에 관한 중심기억과 이를 감싸며 영화 전체의 정서를 담아내고 있는 잉여기억 등을 통해 <자산어보>는 19세기 초반 역사적 전환기에 시대의 한계와 가능성 사이에서 갈등하는 두 명의 인물을 그려내고 있다.

역사극 창작 경험이 풍부한 이준익은 서사적 구성 과정에서 사료와 고증에 최대한 충실하였다. 하지만 몇몇 장면에서는 서사적 목표와 작품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역사관을 드러내기 위해 의도적으로 창조적 왜곡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정약전이 이름 없는 생물(물고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을 보여주기 위해 갯벌이 없는 흑산도에 살지 않는 쟁쟁어를 선택[9]하거나 창대의 깨달음의 결정적인 계기를 위해, 정약용이 나주에서 목격해 시(<애질양>)를 통해 남긴 내용을 창대가 목격한 것으로 바꾸기도 하였다. 가거택의 대사 ‘씨만 중허고 밭 귀한 줄은 모르는 거 말이여라... 인제 자식들도 애미 귀한 줄 알아야 씨’는 정약용의 기록을 가거택의 입을 통해 관객에게 전달함으로써 변화하는 시대상을 담아내었다[10].

감독의 역사관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창조적 왜곡은 두 중심기억이 만나는 지점에서 발생한다. 이준익은 약전과 창대의 마지막 만남을 극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약전이 『자산어보』를 완성하는 장소로 우이도를 선택한다. 실제로 『자산어보』는 우이도로 이배(移配)되기 전에 이미 완성되었다[8]. 하지만 영화에서는 우이도에서 약전이 책을 완성하는 장면을 파랑새에 관한 약전의 보이스 오버 내레이션과 감옥에서의 창대의 깨달음의 순간과 병치함으로써 두 중심 기억을 결합시킨다.

정약전은 『자산어보』의 완성을 통해 자신이 추구했던 유배지에서의 삶의 목표를 완성한다. 장창대는 나주 관아에서의 짧은 관직 생활의 경험을 통해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독립된 주체로 살 것을 다짐한다. 창대의 깨달음은 ‘자산같은 검은색 무명천으로 사는 것도 뜻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약전의 편지를 읽으며 더욱 고조된다. 흑산도로 돌아가는 창대의 눈 앞에 보이는 흑산도와 푸른 바다의 컬러 이미지는 세상을 보는 창대의 시각의 근본적인 변화를 상징한다.

## 3. <자산어보>의 세 겹의 현재

<자산어보>는 조선을 지탱해 왔던 지배원리인 성리학적 이데올로기가 본격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한 1801년의 기억을 현재의 시간으로 가지고 온다. 1800년 조선의 마지막 르네상스를 꿈꾸었던 정조의 갑작스러운 죽음 후 19세기의 시작과 함께 조선은 서서히 몰락해간다.

영화는 신분제의 동요, 서구열강의 침탈, 종교 박해, 세도 정치, 민란 등으로 요동치는 조선의 시대적 전환기의 기억을 약전과 창대의 관계맺음으로 현재화하고 있다[기억(과거)-주의(현재)]. 두 사람이 시대적 한계를 절감하며 고통 받으면서도 주체적 개인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은 현재의 우리가 어디에 서있고 어디로 향해 가야하는지에 관하여 묻고 있다[주의(현재)-기대(미래)].

민족, 국가, 종교, 제도 등 한 사람의 정체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요소들을 제외한다면 우리는 어떤 존재로 이해될 수 있는가? 글로벌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시대 주체적 개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고민해 볼 것을 <자산어보>는 제안하고 있다.

## V. 나가는 말

지금까지 <자산어보>가 성리학적 질서가 흔들리며 서서히 몰락해가는 19세기 조선에 관한 기억을 서로 다른 위치에 있는 두 명의 인물을 중심으로 어떻게 재현하고 있는지를 역사극의 분석틀을 활용하여 분석해보았다. 영화는 유배 서사의 플롯 구조를 기반으로 현실의 한계 내에서 자신의 주체적 삶을 만들어가는 정약전과 현실의 한계를 깨달아 가며 주체적 개인이 되는 길을 모색하는 장창대의 모습을 중심기억과 잉여기억 등을 통해 재현하고 있다. 이준익은 이 과정에서 역사적

사실과 배치되는 창조적 왜곡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자신의 역사관을 드러내고 있다.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텍스트 분석에만 연구의 범위를 한정시킨 데에서 오는 근본적인 한계이다. 텍스트 분석의 결과와 영화를 관람한 관객의 수용 과정에 관한 실증적인 후속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좀더 풍부한 논의가 가능해 질 것이다. 둘째, 이준익 감독의 기존 작품들 특히 역사극으로 묶을 수 있는 영화들과 <자산어보>와의 연관성의 관점에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준익의 역사극을 관통하는 역사관, 서사적 구성 과정에서 드러나는 독특한 특성 등에 관한 보다 포괄적인 관점에서의 연구는 향후 후속 연구의 과제로 남겨둔다.

black and white like ink-and-wash painting”, *Onews*, Apr. 20. 2021. <http://www.ონews.tv/news/articleView.html?idxno=68567> (accessed Jun. 20. 2023).

[10] Sujeong Wi, ‘[Interview ②] Director Lee Joon-ik of <The Book of Fish> “History is our story, no distortion or fabrication”’, *Onews*, Apr. 20. 2021. <http://www.ონews.tv/news/articleView.html?idxno=68569> (accessed Jun. 20. 2023).

※ 이 논문은 한신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References

- [1] Eunsun Kwon, “The Psychology of Abandoned Sons - The Father-Son Relationship in <Sunset in My Hometown> and <The Book of Fish>”, *The Journal of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JCCT)*, Vol. 7, No. 3, pp. 445-451, August 2021.
- [2] Bordwell, D., *Narration in the Fiction Film*,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1985.
- [3] Yong Soo Kim, “The Features of Korean Historical Drama Analyzed from the Theoretical Viewpoint”, *Journal of Korean Theatre Studies Association*, No. 35, pp. 5-47, 2008.
- [4] Hee Sang Chae, “A Study on <The Fortress> as a Site of Memory of Defeat”, *Contemporary Film Studies*, Vol. 49, pp. 85-106, 2023.
- [5] Rosenstone, R. A., *Revising History : Film and the Construction of a New Past*,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4.
- [6] Toplin, R. B., “The Filmmaker as Historian”, *The American Historical Review*, Vol. 93, No. 5, pp. 1210-1227, 1998.
- [7] Hee Sang Chae, “An Study on the ‘triple présent’ of the popular movie <Spirits’ Home coming>”, *Journal of Political Communication*, No. 45, pp. 103-127, 2017.
- [8] Sun-Mi Kim, “A study of the Exile Narrative of the Movie <The Book of Fish>”, *Journal of Popular Narrative*, Vol. 28, No. 1, pp. 13-32, 2022.
- [9] Sujeong Wi, ‘[Interview ①] Director Lee Joon-ik “<The Book of Fish> contains the aesthetics of